

SELF CHECK

나는 어디까지 답할 수 있나

연구회가 끝날 때, 아래 질문들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sLM 도입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지금 답할 수 있는 항목에 체크해보세요 —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.

진행률

0 / 34

Level 1. 이 문제를 AI로 풀어야 하는가 (프로젝트 시작 전)

- 이 문제는 정말 문제인가?
- AI 없이 해결 가능한가?
- 규칙 기반으로 해결 가능한가?
- 기존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가?
- 생성형 AI가 정말 필요한가?
- 운영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가?

0/6 — 아직 약한 레벨입니다. 다시 보기: [모듈 0](#) (7월 주제 제안 활동에서 다시 훈련합니다)

Level 2. 어떤 AI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 (솔루션 선정)



- 검색 시스템만으로 해결 가능한가?
- RAG가 필요한가?
- LLM만으로 가능한가?
- 도구 호출(Tool Calling)이 필요한가?
- 챗봇인가, 워크플로우인가, 에이전트인가?
- 파인튜닝(Fine-tuning)이 필요한가?

0/6 — 아직 약한 레벨입니다. 다시 보기: [모듈 5](#) · [모듈 0](#)

Level 3.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가 (기술 선정)

- 어떤 모델을 써야 하는가(성능·라이선스·언어)?
- 컨텍스트 윈도우는 충분한가?
- 양자화 가능한가?
- 양자화 후 품질 저하는 허용 가능한가?
- 임베딩(Embedding) 모델은 무엇을 쓸 것인가?

0/5 — 아직 약한 레벨입니다. 다시 보기: [모듈 1](#) · [모듈 3](#) · [용어사전](#)

Level 4.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(시스템 설계)

- vLLM을 써야 하는가?
- llama.cpp를 써야 하는가?

- Ollama로 충분한가?
- 예상 동시접속자는 몇 명인가?
- KV 캐시가 병목이 되는가?
- GPU는 몇 장 필요한가?

0/6 — 아직 약한 레벨입니다. 다시 보기: [모듈 2](#) · [모듈 4](#) · [심화 모듈 7](#)

Level 5. 성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(평가)

- 평가셋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?
- 골든셋(Golden Set·정답 기준)은 무엇인가?
- 환각(Hallucination)은 얼마나 발생하는가?
- 응답 속도는 충분한가?
- 사용자 만족도는 어떤가?
- 기존 방식보다 개선되었는가?

0/6 — 아직 약한 레벨입니다. 다시 보기: [모듈 6](#)

Level 6. 실제 현업 적용이 가능한가 (운영)

- 챗봇이 적합한가, 에이전트가 필요한가?
- 장애가 나면 어디를 봐야 하는가?
- 모델 교체 기준은 무엇인가?

- 유지보수는 누가 할 것인가?
- 운영 가이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?

0/5 — 아직 약한 레벨입니다. 다시 보기: [모듈 5](#) · [모듈 4](#) (10~11월 PoC·운영 실습에서 완성되는 레벨입니다)

✦ 지금 추천 복습 경로

Level 1 · AI로 풀 문제인가 (0/6) → [모듈 0](#)

Level 2 · 어떤 방식인가 (0/6) → [모듈 5](#) · [모듈 0](#)

Level 3 · 어떤 모델인가 (0/5) → [모듈 1](#) · [모듈 3](#) · [용어사전](#)

Level 4 · 어떻게 운영하나 (0/6) → [모듈 2](#) · [모듈 4](#) · [심화 모듈 7](#)

Level 5 · 성공 판단 근거 (0/6) → [모듈 6](#)

Level 6 · 현업 적용·운영 (0/5) → [모듈 5](#) · [모듈 4](#)

가장 약한 레벨부터 정렬했습니다. 한 번에 다 채우려 하지 말고, 맨 위 하나부터.

각 레벨은 학습 모듈 및 월별 활동과 연결됩니다. Level 1~2는 모듈 0·5, Level 3은 모듈 1·3, Level 4는 모듈 2·4(장비 지형은 심화 모듈 7), Level 5는 모듈 6, Level 6은 하반기 실습에서 다룹니다.

[← 이전](#)

모듈 7 · AI 반도체 생태계

[다음 →](#)
[전체 목차](#)